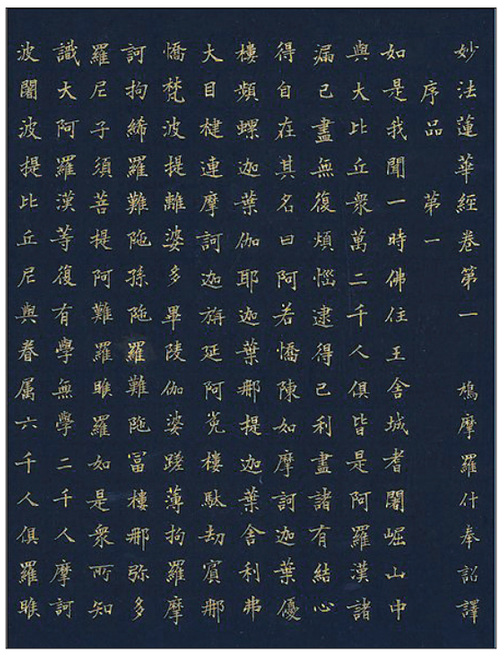
칠순 서예가 사경으로 본 '유·불·선'

〈儒佛仙〉

월천 권경상 작가, 생애 첫 개인 서예전
6월 12~18일, 서울 한국미술관 3층서
10여 년 걸쳐 작업한 〈묘법연화경〉 등
경전 32종 등 방대한 사경 작품 전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권경상 작가의 사경 〈묘법연화경〉.

한학자이면서 서예가인 월천(月泉) 권경상(權卿相) 작가가 '사경(寫經)으로 본 유(儒)·불(佛)·선(仙)' 전시회를 연다. 한국 서예계의 거목인 여초 김응현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권경상 작가의 생애 첫 개인 서예전이다.

6월 12~18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0여 년에 걸쳐 사경을 마친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육조 혜능이 해석을 부기한 〈금강경〉 〈미륵경〉 등 경전 32종과 유학(儒學) 경전 〈대학〉 〈중용〉 그리고 도교(道敎)의 근간이 되는 〈노자〉 등 총 35종의 방대한 사경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대학〉 〈중용〉은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선현들의 이론을 망라해 간주(間注)로 표기해 사경했다. 뿐만 아니라 소주(小註)까지 번역하고 각주를 병기한 번역본을 전시회에 맞춰 출판해 주목받고 있다.

권경상 작가는 "가헌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의 권유로 틈틈이 작업하다가 지난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에 전파되면서 모든 강의가 중단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에 매달렸다"면서 "이번 전시는 그 결과물들로, 전체 35만자 사경에 같은 글씨는 한자도 없을 정도로 몰입하며 정성을 다했다"고 이번 전시를 설명했다.

올해 70세가 된 권경상 작가는 매일 아침마다 사경을 하고 부처님께 예경 올린다. 또 틈이 날 때마다 마라톤과 산행을 즐긴다. 권 작가는 "아직도 붓으로 5㎜ 크기의 글씨를 쓸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돌이켜 보면 타고난 재능은 없었으나 큰 스승을 만나는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구당 여원구 동방연서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축하하며 "월천 선생의 글씨는 꾸밈이 없고 소박하며 예스럽고, 응결되고 정련된 것이 강건하며, 뛰어나게 아름답다"면서 "필사가 돼 후세에 사경 교본으로서 한국서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천에서 성장한 권경상 작가는 6살 때부터 선친에게 서예와 한문을 배우다가 가림(佳林) 이달호(李達浩) 선생에게 한문을 수학했으며, 결혼한 이후에 동방연서회에서 여초 김응현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사사(師事)했다.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 연수부와 상임연구원을 졸업하고 국역위원과 강사를 역임했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국제서법예술연합회 초대작가로 서예대전을 비롯한 많은 대회의 심사위원 및 감수위원을 지냈다.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 국보됐다

5월 27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구성·표현 등 예술적 가치도 탁월



5월 27일 국보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27일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이번 국보 지정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이래 첫 사례다.

200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다.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돼 있다.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불화다.

조선 초기에는 〈월인석보(月印釋譜)〉의 변상도를 차용한 팔상도가 제작되다가 후기에 접어들면서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제시된 도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행했는데,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순천 송광사 팔상도다.

현재 송광사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화기를 통해 1725년(조선 영조 1)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확인되며,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해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 또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화승 의겸의 지휘 하에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팔상도 각 폭이 통일된 필선과 색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화제로 구성된 팔상의 인물들은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고 전각 및 소나무 등을 이용해 공간성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은호 기자

6월, 부처님법 만나는 무용대전 열린다

6월 6일부터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
인도 주빈국으로 22개팀 50여 명 참가
6월 5일 콘퍼런스…결선·시상 7월 6일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 출연팀 최보결의 춤의 학교 '몸의 시'.

불교계 대표 무용 페스티벌 불교무용대전이 10회를 맞아 6월 한 달간 성대한 축제를 연다. 불교무용이라는 개념도 없던 열악한 환경 속에 시작한 불교무용대전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무용 페스티벌이자 한국의 무용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는 5월 29일 성균소극장에서 '제10회 국제불교무용대전 기념 쇼케이스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은 이날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6월 5일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IDANS '불교무용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진행한다. 6월 7~30일 본선을, 7월 6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갖는다.

올해는 특히 10주년을 맞아 불교 발상지인 인도를 주빈국으로 선정했다. 공연 첫 주는 역대 수상자들의 초청공연도 준비됐다.

본선은 성균소극장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최보결의 춤의 학교, 수(修) 예술단, 춤이상&서정 무용단, 윤명화무용단, 마묵무용단, 치트라 달비(인도), 카츠미 요시유키·하나야기 리두(일본) 등 22팀 5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 기념 콘퍼런스(IDANS)는 '불교무용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빈국 인도의 뭄바이 국립 공연예술센터 무용 프로그래밍 책임자 스왑노칼파 다스굽타 박사(Dr. Swapnokalpa Dasgupta), 바라타 미술문화대학 조교수 치트라 달비(Prof. Chitra Dalvi), 베트남 무용대학 협의회 의장 응우옌 투이 응아 박사(Dr. Nguyen Thuy Nga), 베트남 무용대학 전 총장 트란 반 하이 박사(Dr. Tran Van Hai), 일본 '앗파레 후지' 페스티벌 집행위원회 고문 아츠시 스기모토(Director Atsushi Sugimoto) 등 한국, 인도, 베트남, 일본 4개국의 무용계 및 문화예술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가를 확정했다.

결선 및 시상식은 7월 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144836)이 필수다.

쇼케이스에서 이철진 구슬주머니 대표는 "10년 전 처음 불교 무용대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10회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면서 지난 10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교 무용대전이 아시아를 불교로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해외 무용수들과 함께 협업 무대를 많이 만들어 세계 속 불교무용의 앞으로 10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70-4135-3333

임은호 기자

덕산 스님, 직지 가르침 담긴 음반 발표

직지 대의 담긴 12곡 공개
송우주 등 불자가수 동참



청주에서 직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이 음반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발매했다.〈사진〉

직지의 도시 청주에서 수십 년 동안 직지 강의를 해온 덕산 스님은 직지의 내용보다는 인쇄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직접 듣고 체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로 이번 앨범을 제작했다.

직지의 대의와 가르침을 집약한 노랫말을 불자 작곡가 오해균 가릉빈가 소리 대표에게 의뢰, 12곡을 만들었다. 이어 신심 깊은 불자가수 서주경, 현당, 이정옥, 정향속, 오영민, 송우주 등 10여 명을 선정, 음반을 제작했다. 이번 음반은 기존 찬불가 방식을 벗어나 가요의 리듬을 차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웃종교인과 무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교 색채를 걷어냈다.

덕산 스님은 이번 앨범 제작을 계기로 사찰 신도로 구성된 인디밴드 '허튼소리'를 결성했다. 이들은 참여 가수들과 함께 청주는 물론 전국 각지를 순례하며 음성공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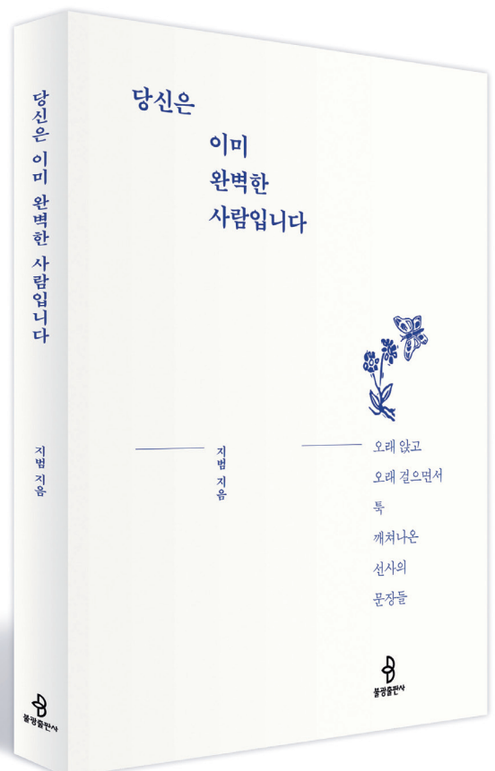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며,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세상이 두렵고, 혼란스러우며,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범 스님의 넉넉한 미소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결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의 단단한 공부 속에서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래 앉고
오래 걸으면서
툭
깨쳐나온
선사의
문장들

지범 지음 | 224쪽 | 값 17,000원



지범 스님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보문선원 선원장. 1978년 출가 후 20년 넘게 운수납자로 살아오며 전국 제방선원에서 오로지 수좌의 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대자암 무문관, 백담사 무문관, 진귀암 무문관 등에서 3년을 치열하게 몸을 던졌으며, 봉암사와 고운사 100일 용맹정진을 여법하게 회향하기도 했다. 2000년 은사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하게 되어, 보문사 주지를 맡게 되었다. 이후에도 결제철엔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수좌로 돌아가 좌복에 몸을 던져왔다. 2022년 서울 도심에 출·재가자가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보문선원을 개원하고, 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이끌며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BBS불교방송 '지대방 산책'에서 법음을 전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